

● 開 會 辭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는 해로



會長 金 鍾 浩

오늘 第24次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內外 貴賓을 모시고 會員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한가운데 開會辭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움을 克服하고 오로지 圖書館 發展에 진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줄 압니다만 지난해에는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가 發刊되었습니다. 우리 圖協이 이제는 完全한 成年의 연륜을 쌓아 올린셈입니다. 人的構成으로 組織된 社團法人體가 30년이란 긴 세월을 계속 存立해 왔다는 것은 國家社會의 絶대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團體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獻身의 努力의 뒷받침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自存과 矜持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 圖協 30年을 살펴보면, 創立당초에는 18個館의 발기로 出發한 이래 꾸준히 成長하여 이제는 1千餘 會員을 가진 名實共に 우리 나라 圖書館 事業活動의 中心體로 자랐으며 아울러 圖書館의 發展도 당시 70餘館에 불과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4千餘個館이라는 놀라운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本協會는 全體 圖書館人들의 衆意를 代辯하는 集團機能으로서만이 아니라 國家의 教育文化 政策 樹立에 적극 참여하는 公共機關으로서 그 位置를 確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團體가 名실상부한 公機關으로서 圖書館 事業과 國家發展에 없어서는 안 될 團體로 成長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協會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獻身의 努力을 아끼시지 않고 흘리신 땀의 結晶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들의 求心體인 圖書館協會는 純粹한 社會文化學術團體로서의 崇高한 위치를 지켜 오는 가운데 發展을 圖謀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解決되지 않은 여러가지 當面問題가 우리들 앞에 山積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시급히 解決되어야 할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協會의 運營을 살펴 보더라도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會館 하나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財政自立마저 아직껏 確保되지 않은 狀態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임으로 協會의 活動은 자연 위축이 되고 우리들의 의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狀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親愛하는 圖書館界 同志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매일수록 結束을 굳게 다지고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하여 跳躍의 轉機가 마련되도록 여러분의 絶대적인 聲援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最近에 이르러서 우리 社會가 急速度로 近代化되어짐에 따라서 圖書館의 社會的 必要性이 날로 增大되어져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圖書館의 育成策이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時代의 要請에 積極 對應키 위하여 모든 準備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本人은 이에 우리의 當面 課題中 무엇보다도 먼저 성취해야 할 것은, 現行 圖書館法의 時急한 改正이 아닌가 平素 생각해 왔습니다. 今年度는 이를 위하여 最善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先行되어져야 보다 빨리 目的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點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團合된 힘을 과시하여 落後된 우리 나라 圖書館 發展에 새로운 活力素를 불어 넣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다같이 精進할 것을 오늘 定期總會 席上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는 모든 問題點의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會員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30餘年間 알뜰히 지켜온 協會를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도록 진지하게 총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의 韓國圖書館賞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